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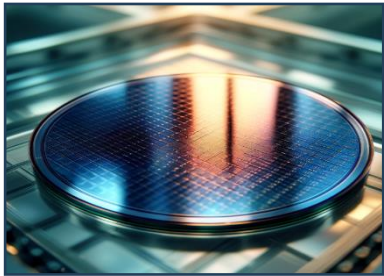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7월

발행일 : 2024년 6월 28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 <팀코리아협의회 동정>산업부·코트라, K-의료기기 베트남 수출지원 나서 11
- ✓ <기업탐방>시몬느 12
- ✓ <법률>베트남 산재처리 전현우 변호사 14
-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4탄 엄진용 회계사 16
- ✓ <중재>베트남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대한상사중재원 18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까오방성> 21
- ✓ <이달의 보고서> 세계은행 베트남 경제 반기 보고서 27
- 2024 베트남 콘텐츠산업 동향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28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3





베트남 반도체 전공정 소재 시장동향

- 아직은 후공정 중심인 베트남, 한국의 전공정 소재 수출 저조
- 향후 베트남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수출 증대 가능성

시장동향

AI, 5G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주요 광물과 더불어 제조 인력이 풍부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베트남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6년 106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82억 4,000만 달러로 71.8% 증가했다. 비록 2023년 베트남의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5.5%의 감소해 17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27년에는 2024년부터 연평균 9.62% 성장해 시장 규모가 2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동향

아직 베트남은 설계 및 후공정 위주로 반도체 산업이 성숙해가고 있어 현지의 실리콘 웨이퍼, 감광액, 현상제 등 반도체 전공정 소재 생산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경우 주로 디자인하우스 또는 팹리스(Fabless) 기업 위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일부 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	기업명	국가	주력분야	No.	기업명	국가	주력분야
1	GUC	대만	디자인하우스	9	Synopsys	미국	팹리스
2	Realtek	대만	팹리스	10	Truechip	인도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3	Amkor Technology	미국	패키징	11	Ban Vien Corporation	일본	종합
4	Ampere Computing	미국	종합	12	Renesas	일본	테스트
5	Dreambig Semiconductor	미국	팹리스	13	ETA Solution	중국	디자인하우스
6	Intel	미국	종합	14	Hana Micron	한국	패키징
7	Marvell	미국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15	FPT Semiconductor	베트남	디자인하우스
8	Microchip	미국	팹리스	16	Viettel High Tech	베트남	팹리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개발, 세금 감면,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엔비디아(NVIDIA) 대표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의 주요 반도체 기업 및 IT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베트남에 방문한 이후로, 두 나라의 반도체 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에 기진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진출 계획이 있는 글로벌 반도체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선제적으로 도모해 반도체 재료 및 부품품 수출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스낵류 시장동향

- 짭짤한 과자를 가장 많이 즐기는 베트남 소비자들
-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하는 베트남 스낵류 시장

시장동향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스낵시장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5년 동안에도 연평균 약 8.8%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VietnamCredi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은 주당 평균 8회 이상의 간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간식 등 소량 식사를 선호하는 베트남인의 식습관은 베트남 제과 시장의 높은 성장률 예측을 뒷받침한다. 2023년 제과류를 포함한 베트남의 스낵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6.5% 상승하여 24억 달러를 돌파했다. 스낵류 시장은 세부적으로 초콜릿과 껌을 포함한 스낵류(Confectionery), 아이스크림류(Ice Cream), 짭짤한 스낵류(Savoury Snacks) 및 제과류(Sweet Biscuits, Snack Bars and Fruit Snacks) 네 가지로 구분된다. 2023년 누적 통계 기준, 매출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는 ‘짭짤한 과자류’로 약 9억7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스낵류 매출액 중 3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품목은 초콜릿과 껌을 포함한 스낵류(27.7%), 제과류(27.4)와 아이스크림류(8%)다.

유통구조

베트남의 스낵류 유통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형태의 소규모 식료품점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현대적인 시설의 대형 마켓과 편의점 채널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식료품점이 74%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6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스낵류의 경우 소비자의 대부분이 집 부근에 위치한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구매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베트남 소비자의 평균소득 증가, 간식을 자주 먹는 베트남의 식습관, 평균 연령 32.5세의 젊은 인구, 새로운 맛과 트렌드에 대한 높은 관심도 등의 여러가지 요인은 베트남의 스낵류 시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스낵류 시장의 경우 이미 다양한 국내외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며, 정부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제와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또한, 전통적인 소규모의 오프라인 식료품점이 해당 산업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적합한 현지 유통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한 식습관’이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신제품 개발 시 설탕 함량을 낮추고, 천연 성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추가된 제품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베트남 스낵 시장에 관심있는 기업의 경우 건강한 스낵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기초화장품(스킨케어) 시장동향

- '28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률 예상, 시장 규모는 16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3년 하반기 기준, 한국이 베트남의 기초화장품류 전체 수입시장의 37.6%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

시장동향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28억7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스킨케어' 부문이 시장 규모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10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스킨케어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16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

베트남의 2023년 기초화장품(HS Code 3304.99)의 총 수입액은 5억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한국이 수입시장의 전체 1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중국이 48.8%의 점유율로 수입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9.2%로 2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모는 연도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23년 하반기(7~12월)를 기준으로 베트남의 기초화장품류 수입시장 동향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기초화장품류 제품이 전체 수입시장의 37.6%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하반기(7~12월) 기준 베트남의 대한국 총수입액은 5590만 달러이며, 이는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국가의 수입총액인 5560만 달러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산 브랜드 제품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뷰티 및 스킨케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2023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이용률 1위 플랫폼인 쇼피 베트남(Shopee Vietnam)에 따르면, 2024년 1월 화장품 분야 판매 총액 기준 전체 1위와 3위는 모두 한국산 기초화장품 제품이 차지했다.

시사점

1억 인구의 풍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국 화장품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7~12월) 기준, 한국의 기초화장품류 제품은 베트남 전체 수입시장의 37.6%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우수한 성분, 고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대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 기초화장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 킨텍스, KOTRA가 공동으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사이공 뷰티쇼 & K-뷰티 엑스포 베트남'을 호치민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 시장 현황과 최신 뷰티 트렌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바이어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 및 판로 확대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베트남 냉연강판 시장동향

- 한국, 중국에 이어 베트남 수입시장서 2위
- 철강산업 침체, 무역구제 조치 등 현지 최신 동향 사전 점검 필요

시장규모

베트남 철강협회(VSA)는 베트남의 주요 철강 기업 103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VSA 회원사의 냉연강판 전년 대비 생산량은 15.8% 감소한 337만 톤을 기록했다. 판매량은 3.5% 감소한 195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 중 수출량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44만9000톤을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생산, 판매, 수출이 모두 지속 감소하고 있고, 2023년에는 생산, 판매, 수출이 모두 최근 5개년 중 가장 저조했다. 한편, 베트남에서 냉연강판이 전체 철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철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베트남 철강협회의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냉연강판 생산량은 베트남의 총 철강 생산량(2,776만 톤)의 12.1%이다.

시장동향

베트남의 냉연강판 시장은 수요는 감소한 데 반해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은 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철강 시장은 중국 철강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중국 내 철강 재고가 많아졌고, 이에 중국의 철강 제조업체들은 내수 시장 부진을 만회하고자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늘려왔으나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중국산 철강 제품은 관세를 적용 받지 않아 중국산 철강과의 직접적인 경쟁과 베트남의 내부적인 철강 공급 과잉은 베트남 철강 업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산 열연강판이 문제시되고 있다. 베트남산 열연강판보다 저렴한 수입품이 많아 여전히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다. 관세총국에 따르면, 실제로 2024년 1분기 열연강판(HRC) 수입량은 베트남 국내 생산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3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열연강판 가격은 물론 냉연강판의 가격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올 4월 베트남의 주요 열연강판 제조업체로부터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검토를 위한 조사 착수 요청을 받기도 했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한국은 베트남의 냉연강판 수입 시장에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개선에 나선다면, 다른 주요 수출국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동시에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을 극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주요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사례가 많다. 베트남의 냉연강판 및 베트남에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무역구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철강 수출기업들은 베트남 무역구제청(클릭),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클릭) 등 현지 주요 기관이나 KOTRA A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베트남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최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라지는 현금 결제: 성장하는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

- 전자결제와 친숙한 베트남의 젊은 인구층
- 베트남 전자결제 시장 진출 관련 정부의 정책

시장동향

비자(Visa)의 '2023년 베트남 소비자 결제 태도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QR 코드 결제 이용률과 온라인 지갑 결제 이용률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인들의 전자결제 수용도의 경우 79%의 식당, 74%의 도소매업, 74%의 편의점, 73%의 택시 및 승차공유업, 72%의 슈퍼마켓이다. 또한,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베트남에서는 소액한도 내에서 후불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인 '선구매 후지불(BNPL)' 시장이 활성화되며 온라인 전자 결제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자지갑을 포함한 베트남의 전자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전자결제 사용자 수 또한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주요 전자결제 브랜드로는 모모, 잘로페이, 쇼피페이, 비엠텔페이, 브이앤페이, 그랩페이(모카)등이 있다.

베트남 전자지갑 업체와 베트남 진출 한국은행의 제휴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 '잘로(Zalo)'를 운영중인 VNG 그룹의 자회사인 잘로페이와 롯데카드는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으며 간편한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베트남 금융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한은행 베트남은 2018년 MOMO와 MOU를 체결하여 한국의 송금자가 신한 글로벌 S뱅크 앱으로 베트남의 MOMO 사용자에게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리은행 베트남도 VNPT EPay와 제휴하여 VNPT EPay 앱을 연동하여 송금 및 비대면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사점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2024년 1월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비현금결제의 총거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으며 QR코드를 통한 결제건수의 경우 8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현금결제에서 비현금결제로의 전환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QR코드 결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공과금, 학비, TV 수신료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며 대중적인 결제수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농촌 지역 인구가 9,94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의 특성상, 이들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전자결제 시장으로의 전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결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결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비현금결제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에 따라 최근 '비현금결제에 관한 시행령 52/2024/ND-CP'을 통해 처음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와 향후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은 2024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베트남 국영 은행, 신용기관 및 기업의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 전략을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베트남 두발용 제품 시장동향

- 2023년 중국산 두발용 제품 수입 급증
- 두발용 제품도 외모 관리를 위한 소비일 가능성이 커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 필요

시장동향

영국의 대표적인 가전제품 기업인 다이슨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23개국 대상시행한 ‘2022년 다이슨 글로벌 헤어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베트남인의 98%가 두피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이 중 61%는 두피 관리를 위해 전문 제품과 트리트먼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베트남의 헤어케어’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베트남 내 위생 인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베트남 전역에서 헤어케어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머리를 자주 컬링하고 염색하고 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발이 쉽게 손상되어 보색 샴푸, 염색모 전용 샴푸 및 비타민이나 콜라겐이 함유된 컨디셔너 및 트리트먼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베트남 헤어케어 시장 규모는 2018년 1억 9,94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 1,330만 달러로 10.9% 증가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93%의 연평균 성장률로 2028년 2억 4,3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2023년 베트남의 헤어케어 시장은 헤어린스, 헤어크림, 포마드 등 샴푸가 아닌 두발용 제품 수입이 급증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HS 코드 3305.90 품목이 다시 세 개 품목으로 세분화되어 분류되지만, 베트남의 경우 그렇지 않아 두발용 제품 중 어떤 제품의 수입이 늘었는지 세세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성별 구분을 통해 수입 급증의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베트남 여성 소비자는 대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률이 높아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본인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 외출이 잦아지며, 두발도 외모 관리 대상으로서의 중요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두발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크림, 염색약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을 것이다. 한편, 베트남 남성 소비자에게는 샤워와 머리 감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2-in-1’ 제품이 인기가 높을 정도로 헤어 제품이나 샤워 제품을 소비함에 있어 편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남성 소비자들의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팩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남성 소비자에게도 외모 관리의 대상으로서 두발의 중요도가 높아져 포마드 등 헤어 스타일링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이미 바버샵(남성 전용 이발소)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동양인 특성상 모발이 세고 뽀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짧은 머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포마드, 왁스 등 제품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두발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베트남 소비자의 디토(ditto) 소비(특정 인물이나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 접근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 베트남 팜 민 쩐 총리, 7월 초 방한 예정

팜 민 쩐 총리 (서열 3위) 가 7월 초 방한 예정임. 팜 민 쩐 총리를 비롯해 기획투자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업사절단 등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임. MOU 체결 및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면담 및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 전망임. 그외 ‘한·베 비즈니스 포럼’서 삼성·SK·효성 등 만날 계획임.

[매일경제 6.24]

▶ 베트남,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추진

베트남 재정부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5%~17%로 인하를 제안함. 베트남 재정부의 연 매출이 30억 동(약 11.7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15%, 30억 동 이상 500억 동(약 196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17%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 마련 후 의견수렴 중임. 베트남에는 약 90만 개의 기업이 있으며, 이 중 94%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추정됨.

[Vietnam news 6.21]

▶ 베트남-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강화’ 공동성명 발표

6월 19~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 방문이 진행됨. 베-러 정상은 △교육 △석유 △원자력 부문 등 11개 협정을 체결함. 에너지 및 석유 부문 투자 이니셔티브 확대,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국방-안보 협력 증진 및 △농업 △교육 및 훈련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등 주요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촉진하기로 합의함.

[Vietnam news 6.20]

▶ 푸틴 러시아 대통령, 6월 19~20일 베트남 국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 대통령이 베트남 권력 서열 1~4위와 회담할 예정임. △에너지 △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주요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 촉진 및 양국 경제·통상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Vietnam news 6.18]

▶ 베트남, 특별소비세법 개정 추진

베트남 재정부의 주류 특소세 인상 및 가당 음료 특소세 부과를 제안함. 특소세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맥주 등 주류 대상 특소세는 현행 65%에서 '26년까지 70%~80%, '30년까지 90%~100%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가당 음료도 특소세 부과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10% 세율 적용을 추진함. 베트남 표준규정에 따르면 가당 음료는 △커피 △과일 음료 △차 △이온 음료 등이 포함되며 △우유·유제품 △생수 △야채즙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Vn economy 6.17]

▶ 베트남 재정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초안 국회 제출

재정부는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함(6월 17일). 총 4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서 판매되는 소액 수입품(39달러 이하)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비료·어선·농기계에 대한 부가세율 인상(0%→5%) 등임.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는 개정법 초안에 담긴 전자상거래 플랫폼서 판매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하루 최대 6,300만 달러 상당의 저가 상품이 수입되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19억 달러에 달함. 저가 상품 부가세 면제 폐지를 통해 국가 수입 예산 확보 및 수입품과 베트남 국내 생산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은 제7차 회기에서 심의 후 '24년 10월 제8차 회기에 통과될 예정

[Vietnam news 6.17]

▶ 베트남, 국영기업 외국인 CEO 채용 시범 실시 검토

총리는 국영기업에 당원이 아닌 외국인 임원과 지도자 고용하는 시범 계획 검토를 요청함. 국영 기업의 보수 체제와 책임 처리는 여전히 행정적이며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국영기업에 채용 계획을 고려하고 고품질 인적 자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혁신할 것을 제안함. 총리는 기업이 사회경제적 발전, 성장, 거시경제적 안정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요 균형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함.

[Good morning Vietnam 6.16]

▶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 침체 지속

오토바이 판매량은 '19년 325만 대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임. '24년 1분기 오토바이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한 60만 3,745대임. '23년 이륜차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18.1% 감소한 278만 대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베트남 성인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이륜차를 보유한 만큼 현지 오토바이 시장은 성장 한계에 직면함.

[Vietnam news 6.11]

▶ 베트남 스킨케어 산업 급성장 준비

젊은 인구가 많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은 스킨케어 제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게 매력적인 시장임. 베트남의 스킨케어 산업은 2028년까지 13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2022년 이후 연간 성장률 6.4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베트남의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통계에 따르면, 뷰티케어 제품은 지난해 총 매출이 14.7억 달러를 기록한 최다수익 상품 중 하나임. LG비나는 2020년 고급 피부화장품 라인인 피지오겔(Physiogel)의 시장 입지를 높이기 위해 시장확대를 선도하는 서비스 업체인 DKSH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함. LG비나는 DKSH와의 파트너십의 결과로 향후 5년 안에 피지오겔 제품의 매출이 3,000억 동(1,1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Good morning Vietnam 6.7]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Minh Dan Waste Treatment Projec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관명 :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Tuyen Quang Province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Minh Dan Ward, Ham Yen Dist., Tuyen Quang Province, Vietnam ▪ 규모 : USD 1.2 million ▪ 프로젝트 관련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ing F/S report: Q3-Q4/2024 - Bidding for investor: Q1-Q2/2025 - Construction: Q2/2025 - COD: Dec. 2025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te type: Municipal solid waste in Tan Yen urban area and communes of Ham Yen District. - Project area: 3.5 ha - Capacity: 50 tons/day in 2025 and upgrades to 80 tons/day in 2030 - Technology: Waste incineration - The unit price of solid waste treatment must be around VND 500,000/ ton of garbage (price includes VAT) according to the approved Decision of the People's Committee (31/2022/QĐ-UBND)



산업부·코트라, K-의료기기 베트남 수출지원 나서

K-Med 엑스포 연계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개최 바이어 306개사 참여, 501건 상담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K-Med 엑스포 연계 의료기기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는 K-Med 엑스포는 킨텍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마련됐다. 엑스포 현장에서 함께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13일부터 양일간 국내 의료기기 기업 84개사가 현지 바이어 306개사와 50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액은 총 91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1400개 이상의 병원과 클리닉에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베트남의 G사부터, 정형외과 의료용품과 수술장비 유통 전문기업 M사까지 치과,영상진단,피부미용 등 분야에서 바이어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베트남은 인구의 절반이 35세 미만으로 젊고 역동적인 국가답게 미용시술 관련 의료기기와 산부인과 의료장비 상담도 활발히 진행됐다.

행사 기간 K-의료기기의 신규 먹거리로 부상 중인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첨단 제품 시연과 학술대회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의료 AI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W사는 “베트남은 질병의 예방에서 진단보조, 치료까지 AI 솔루션의 가능성이 막강한 시장”이라며 “바이어뿐만 아니라 의료진 등 대학병원 구매담당자, 의료기기 대리점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방문해 알찬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용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P사는 “의료기기의 실사용자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전문 의료 학회와 병행하여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베트남 시장 공략 기회에 만족을 표했다.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3년 18.3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경제 성장과 기대 수명의 증가,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헬스케어 5개년 계획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과 접근성 향상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의 6번째 주요 공급국으로서, 한국 의료기기 제품과 국내기업의 진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수출현장 지원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을 포함한 7개 지역에 K-바이오 데스크를 신설한다. 향후 CE-MDR 인증 컨설팅 등 현지 인허가·통관·물류 등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수출지원 특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시장점유율 10%, 글로벌 명품 핸드백 제조기업 시몬느

이민수 법인장

시몬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몬느는 1987년 창립되어 37년의 연혁을 보유한 가방/핸드백 제조기업입니다. 가방/핸드백 뿐 만 아니라 지갑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은 한국에서, 생산은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1992년 중국 광저우 생산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으로서는 중국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초에 진출했는데 해당년도 8월 한-중 수교가 이뤄지면서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늘어난 생산물량을 감당하기 위한 생산공장 추가 증축이 진행되었습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04년 중국 칭다오, 2009년 베트남 롱안성, 2011년 베트남 띠엔장성, 2013년 베트남 띠엔장성 제2공장,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2공장,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진출하여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생산기지에 대한 여러 혜택들이 축소가 되고, 인건비 상승 이외에도 중국이 가진 국가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2021년 중국 내 생산공장은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종합해보면, 베트남에는 총 3개 공장, 직원 약 12,000명이 근무중이며, 캄보디아는 1개 공장에서 4,800명,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총 2개 공장에서 7,500명이 근무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시몬느의 연간 생산량은 핸드백 1,900만장과 지갑 700만장 정도입니다. 주요 바이어사는 코치(Coach), 토리버치(Tory Burch), 마이클코어스(Michael Kors) 등 총 16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연간 매출액은 약 1,000,000,000\$ 정도였으나 코로나 이후 시장이 축소되면서 비즈니스가 많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60%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신 주요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2009년 처음 베트남에 진출했을 당시에는 봉제산업 중에는 옷, 신발 외 다른 산업들은 없었습니다. 옷, 신발은 같은 봉제산업이긴 하지만 핸드백 제조와는 제조 방식이나 여러 구조가 매우 다릅니다. 즉 핸드백 제조 관련 기반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개척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직, 생산 방식, 인력, 기술 등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축적해 나아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베트남 진출 전 다른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해온 경험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공장에 접목시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경쟁력 확보나 새로운 경쟁업체의 등장 등 다른 애로사항도 생겨 나갔고, 특히 그중 무역 장벽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베트남에게 GSP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백의 경우 최소 9%부터 최대 18% 관세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수출된 경우 GPS 혜택을 받아 무관세로 수입이 되기때문에 베트남 제조 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 대비 베트남의 경우 인건비

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자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코로나 이후 기존 베트남에 진출했던 봉제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부분 봉제산업 중 의류 업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류 업종의 경우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기때문에 인건비에 따라서 5년 혹은 7년 단위로 국가를 이동하면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핸드백의 경우 의류 보다는 부가가치가 봉제업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시몬노도 전체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의 60%정도로 감소한 상황이나, 재무제표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16~18%정도인 영업이익률이 지금도 영업이익률은 10~12%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단가도 의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향후 신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사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봉제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신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는 기존 저희의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혹은 아예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는 것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 외에 새로운 시장의 바이어나 다른 유통 구조상의 바이어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늘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물량 전체가 바이어들의 물류창고가 있는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데 6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나머지 35%는 유럽,아시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 제한되는 요소들에 대해 확실한 사전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진출 시 기회요인도 있고 위험요인 모두가 있습니다. 위험요인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언급했던 무역장벽, 언어, 다른 동남아 국가 대비 높은 인건비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는 수출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지만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률, 1억명 가까운 인구 등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을 목표로 진출하시는 기업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만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부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베트남의 경우 지금도 세관, 세무쪽의 비리가 많지만 이부분은 한국도 다 겪어온 과정이기도 하고 특히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이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베트남 법인을 모두 운영해본 기업으로서, 베트남이 조금 더 성장하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이에 장기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베트남은 기본적인 경제 구조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도 FDI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도 FDI기업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진출하느냐에 따라 아직 기회와 잠재력이 많은 국가입니다.

베트남 산재처리 절차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한국 기업들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회사 뿐만 아니라 직원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100% 담보할 수 없으며, 불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그리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판단 기준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8항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대해 업무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체 부위 및 기능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39 제9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가. 사망 업무상 재해(직원의 사망을 초래한 산업재해) :

다음 중 하나의 경우로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사고입니다.

- a) 사고 현장에서 사망;
- b) 응급실로 가는 도중 또는 응급 상황 중 사망;
- c) 법의학 검사 기록 결과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 중 사망 또는 상처 재발로 인한 사망;
- d) 직원에 대한 법원의 실종 선고에 따른 사망 선언

나. 중대 업무상 재해 (직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산업재해) :

사고 결과 직원에게 시행령39/2016/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 경미한 업무상 재해 (직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산업재해) :

사망 업무상 재해 혹은 중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즉, 베트남은 산업재해의 분류를 사망 / 중대업무재해 / 경한업무재해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망 또는 중대업무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 대해 경한업무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가. 사례보고서 제출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관련 시행령 39조의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경우에 따라 관할 당국에 사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의 특성 및 심각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보훈사회국의 노동부 감사관 그리고 공안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 재해의 경우 2명 이상의 직원이 중대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보훈사회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안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경미한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산업안전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6개월에 1번 그리고 매년 산업재해 및 심각한 안전 위험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7월 5일 이전, 연간보고서의 경우 1월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노동자 또는 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 종결이 가능한지

베트남 법률은 각 사고발생시 보고의무를 두고 있으며, 합의 여부는 보고의무를 면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타 사업주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합의는 처리과정에서의 적절성 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외에 사업주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4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 행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처방법_조사의 시작점에서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 각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대응준비를 하던지 아니면 현재 거래중인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방법을 선택한 이후, 세무조사관들의 방문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세무조사관의 입장이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들이 조사대상 법인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지난 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군가를 만나



고 어딘가를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인상'입니다. 설령, 그동안의 결산이나 각종 세무신고에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첫 인상이 깨끗하고 단정하다면 의외의 반전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역시나 법인 사무실내 청결상태가 정리정돈상태가 지저분하다면 예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법인들이 당장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은 바로 조사 첫날 조사관들에게 얼마씩 돈을 주면 좋을까? 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골프라는 운동을 즐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골프 라운딩을 나가게 되면 통상 라운딩이 종료될 때쯤 라운딩을 도와준 고마운 캐디들에게 팁을 얼마씩 주면 좋을까를 잠시 고민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각 골프장의 수준별로 정해져있는 캐디팁이 있을 것이고, 만약 플레이어가 초보라면 아무래도 캐디가 더 많은 수고를 해주었을 테니 남들 보다는 캐디팁을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것 일테죠. 여기서 문제는 캐디로서 형편없었던 캐디에게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캐디팁을 주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라운딩을 시작할 때 미리 캐디팁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세무조사관들의 방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캐디팁을 언급하는 것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첫 날 조사관들에게 마치 우리 법인을 잘 좀 봐달라는 의미로 일정 소액을 지급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사관들에게 조사개시 첫날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 마지막 날 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조사 첫날부터 일정금액을 봉투에 담아주는 것은 아무래도 조사를 나온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 때문이지요. 첫 인사의 의미도 있을테고 베트남이 다보니 아무래도 조사관들의 기대치가 있을지도 모르니 미리 부응하고자 하는 생각도 담겨 있을테구요. 하지

만..정답은 세무조사 개시 첫날 절대로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조사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낸 것도 없고 법인에 도착하자마자 인사 나누고 고작 냉커피 한잔 마시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법인에서 나에게 일정금액을 준다?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행동은 자칫 조사관들로 하여금 혹시 이 법인에 뭔가 숨기고 싶고 구린구석이 많은거 아닌가? 라는 적극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적당한 행동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나의 의도와 진심과는 상관없이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문화와 관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또는 여기가 베트남이다 보니...심지어는 이웃한 타 법인들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등등의 말은 나의 선부른 행동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나의 잘못된 판단에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평상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믿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반드시 실수나 에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관들 입장에서는 더운 날씨에 조사대상 법인에 찾아와 과거 수년치의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일일이 재계산을 하는 지극정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운도 따라줘야 하고 조사관들의 성향도 중요하겠습디만, 혹시 법인 입장에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세무조사의 대처방법 중 조사시작 단계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대한상사중재원 유하영 소장

들어가며

베트남의 은행과 중재원에서 일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애로를 겪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여럿 보았다. 그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은 ‘베트남은 정부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것이다. ‘내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니, 세금을 미리 당겨서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통관 중에 있는 물건을 압수 시키겠다’라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해 세금을 미리 낸 사업가도 있었고, 특하면 공장의 안전대책이 문제가 된다며 찾아와 대가를 요구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업가도 있었다.

오늘은 베트남 정부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분쟁사례들이 ISDS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겪는 분쟁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한 ISDS 사례

사례1. Trinh Vinh Binh v. 베트남 정부: 네덜란드 국적의 베트남계 투자자인 Trinh Vinh Binh은 1990년대 초반 베트남에 자본을 투자하여 여러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1998년 베트남 당국은 그를 부패 및 기타범죄 혐의로 체포하였고 그의 자산은 몰수되었다. Trinh Vinh Binh은 베트남 정부가 그의 재산을 부당하게 몰수하고 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는 투자협정에서 핵심적 조항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가 투자자의 자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위반되었는지 여부, 또 국제투자법에는 투자자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보상이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Trinh Vinh Binh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베트남 정부가 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Trinh Vinh Binh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 받았다.

사례2. ConocoPhillips와 Perenco v. 베트남 정부: 미국 대기업 ConocoPhillips이 소유한 베트남 유전 2곳이 영국-프랑스계 Perenco라는 곳으로 매각되게 되었다. 이 거래로 ConocoPhillips는 미화 896백만 달러라는 이익을 얻었고, 베트남 정부는 이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려 했다. ConocoPhillips와 Perenco는 베트남 정부의 자본이득세 부과가 불합리하고 국제투자보호조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여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자본이득세 부과가 합법적인지 여부, 베트남 정부의 행위가 국제 투자 보호 조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판정 전 양측 간의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



사례3. DWS Star Bridge (DWS) v. 베트남 정부: 2007년 베트남 국영기업(SOE)과 2명의 한국투자자는 호치민시에 상업 및 거주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2015년 한국 법원이 기존 두 투자자의 파산을 선언했고, 해당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을 채권자이자 새로운 한국투자자인 DWS Star Bridge로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다. DWS는 기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소유권을 등록하려 했는데 베트남 국영기업은 일부 문서가 위조 및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DWS는 베트남 정부의 규제와 행정절차가 불투명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었다며, 베트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 국영기업이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DWS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ISDS의향서를 전달한 상태이다.

사례 4. Dialasie SAS v. 베트남 정부: Dialasie SAS는 프랑스 회사로 신장투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장치료와 관련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ialasie는 2004년 베트남에 진출하여 호치민시에서 투석 클리닉을 운영하였는데, 베트남 정부가 호치민의 클리닉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대해서 베트남 정부와 갈등을 겪었고, 이에 따라 ISDS 를 제기했다. Dialasie SAS 측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과 규제를 받는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베트남 자국의 다른 경쟁사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양국의 투자 보호 협정에 명시된 FET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 ICSID는 베트남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베트남 정부가 프랑스-베트남 투자보호조약이나 베트남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마치며

위의 ISDS 사례가 아니더라도 외국투자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겪는 부당한 사례는 다양하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베트남 법률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의 법률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며, 계획된 사업이 갑작스런 규제변화로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부패와 뇌물을 요구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 일부 지방 정부 관료들이 투자허가, 토지사용권, 기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는데, 이는 기업가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리스크를 초래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초기에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투자를 유치한 후,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입하고 난 뒤 조건을 변경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베트남의 법률과 규정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현지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지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며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걸 추천한다. 물론, 베트남 정부의 부당한 처우가 계속 발생할 경우 대사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사안은 해결해주고 어떤 사안은 그렇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C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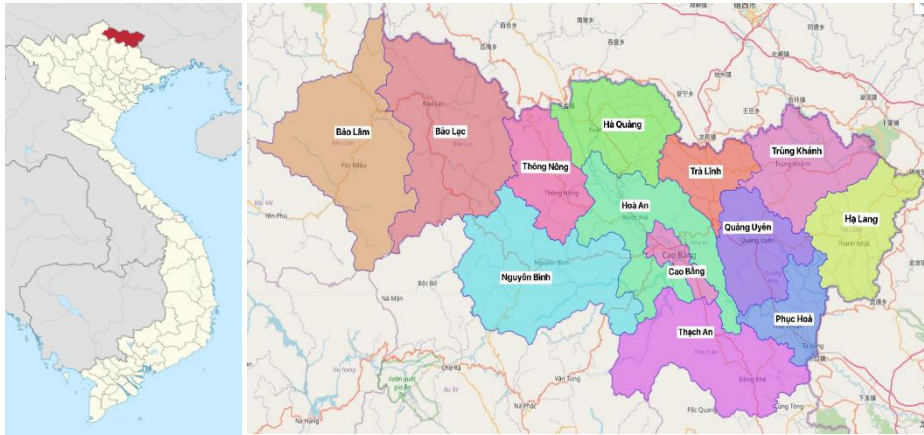
하노이에서 많은 기업인들을 지켜본 필자는 ISDS 제도 역시 하나의 협상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내 E건설사는 베트남 해운공사가 발주한 ‘항만신설공사’를 수주하고 1년 넘게 건설현장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고, 베트남 정부의 지시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다. E건설은 베트남에서 상사중재를 신청했고, 해운공사가 E건설에게 33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해운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지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부렸다. E건설은 법률자문을 받은 뒤,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겠다”고 베트남 정부에 협상요청서를 보냈다. 이후 하노이법원은 해운공사 측의 중재판정 취소를 기각 시켰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경제의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을 고려하면 ISDS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가들에게 훌륭한 협상도구가 될 것이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까오방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6,700.39km² 인구: 547,87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거주 비율: 25.47%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오방성은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국경 산악 성으로, 경제, 정치, 국방에 대한 국가 전체에게 중요성을 갖고 있음 서쪽으로는 하장성(Ha Giang)성과 뚜옌광성(Tuyen Quang)성, 남쪽으로는 박간 (Bac Kan)성과 랑선(Lang Son)성, 북쪽과 동쪽으로는 광시좡족자치구(중국)와 접해 있으며, 국경 길이는 333.12km임 국가 및 북부의 주요 경제 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국경 관문 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오방성은 타이응웬(Thai Nguyen)성, 랑선(Lang Son)성, 하장(Ha Giang) 및 하노이시로 가는 편리한 도로 교통 경로를 갖추고 있음. 동시에 까오방성에서는 현재 동당(Dong Dang)[랑선(Lang Son)성] - 자링(Tra Linh)(까오방성)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2.24%/ 성 1인당 GDP: US 1,731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US 3.8억 달러 / 총 수입액: US 1.48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7.88%), 서비스업(+6.61%), 농수산업(+0.71%) 	
산업구조('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18.17%, 서비스업 56.83%, 농수산업 21.21% 	
노무여건('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연령 인구 비율: 72.4%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50%,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26%) 	
최저임금('24년)	정부의 제38/2022/ND-CP 의결서(2022.06.12)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오방시: VND3,640,000=US146 달러(3급지) 모든 현: VND3,250,000=US130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4.3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오방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8백만 달러 (한국) 아직 없음 	

투자환경



까오방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 국경 관문 지역의 교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며, 동당(Dong Dang) – 자링(Tra Linh) 고속도로가 건설 투자되어 있으며, 성의 국경 관문 경제구역과 다른 경제회랑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성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임.
- 교통 계획 방향에 대해 성 개발의 초점은 까오방 국경 관문 경제구역을 관통하는 국도를 포함한 국도 시스템임: 동당(Dong Dang) – 자링(Tra Linh) 고속도로, 호치민 도로, 3번 국도, 4번 국도, 34번 국도, 34B 국도 등.

➤ 관광

- 까오방성의 지형은 주로 산악지대이며 흥미로운 동굴이 많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음. 강, 호수, 폭포 및 산림 자원의 시스템은 원시적 특징이 스며들어 있는 웅장하고 시적인 자연경관을 만들어 냄.
- 혁명적 전통이 풍부한 땅으로 92개의 등급 분류된 유적지(국립 특별 유적지 3개, 국립 유적지 23개, 성급 유적지 66개)로 많은 가치 있는 역사적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까오방성은 항상 관광 개발과 관련된 문화유산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어 현재까지 2개의 국보와 4개의 국립 무형 문화유산이 있음.
- 2018년 넌느억까오방(Non Nuoc Cao Bang)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음. 6개 현을 포함해 까오방성 면적의 거의 절반(3,072km²)을 차지하고 130개 이상의 독특한 유산지를 보유한 넌느억까오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방문객들이 5억 년이 넘는 지구의 역사, 멋진 자연경관, 독특한 원주민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희귀한 땅임.



넌뜨옥까오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 넌뜨옥까오방 지질공원 내에 위치한 팍버(Pac Bo) 역사 유적지는 호치민 주석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떠난 지 30년 만에 살며 일했던 곳임. 팍버 국립 특별 유적지는 까오방성 하광(Ha Quang)현에 위치하며, 까오방시에서 52km 떨어져 있음. 총면적 295헥타르가 넘고 유적지 60여 점이 매력적인 관광단지를 이루고 있음.
- 그 외에 까오방성은 매력적인 풍경화와 같은 장엄한 반족 폭포(Ban Gioc Waterfall)의 이미지로 유명하기도 함. 독특한 문화적, 정신적 관광 잠재력을 지닌 자연 그대로의 동굴 단지는 관광객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임. 까오방시에서 약 92km 떨어져 있고 중카잉(Trung Khanh)현에 위치한 반족 폭포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자연 폭포로 꼽히며, 국경에 위치한 폭포들 중 세계 4번째로 큰 폭포, 세계 10대 폭포 중 하나이고 1998년에 국립 명승지로 인정받았음.



팍버(Pac Bo) 역사 유적지



반족(Ban Gioc) 폭포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까오방시 및 모든 현은 사회경제적으로 특별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가장 큰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음.
-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까오방시 및 모든 현은 사회경제적으로 특별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행 국가 규정에 따라 가장 큰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음.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모든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 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투자우대 분야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우대 분야: 15년간 계속 면제 ✓ 우대 미등록 분야: 11년간 계속 면제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Đ-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3년 12월말까지 까오방성 대상 총 외국인 투자는 6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8백만 달러 투자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자본금이 천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프로젝트이며, 다룡(Ta Lung) 국경 관문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현재 한국 투자가 아직 없어 한국 투자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No.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 (US 달러)
1	배터리 제조 및 조립 공장	중국	6.81 백만
2	따룡(Ta Lung) 국제 무역 센터	홍콩, 중국	4.86 백만
3	커피 가공 및 포장 공장	중국	4.34 백만
4	주차장 및 화물환승센터	홍콩, 중국	1.3 백만
5	제과식품 생산, 가공, 거래 공장	중국	0.43 백만
6	까오방 면세점	중국	0.17 백만

▶ 공단 현황

○ 경제구역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동력

- 까오방성의 국경 관문 경제구역은 2014년 3월 11일자 국무총리의 결정 제 20/2014/QD-TTg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총 자연 면적은 30,130.34 헥타르이며, 5개의 국경 현에 위치해 있음. 이 경제구역은 중국 국경 관문과 연결된 6개의 국경 관문[2개의 국제 국경 관문 [다룽(Ta Lung), 자링(Tra Linh)], 2개의 양자 국경 관문 [선장(Soc Giang), 리반(Ly Van)], 2개의 보조 국경 관문 [퍼페오(Po Peo), 하랑(Ha Lang)]을 포함함.
- 현재 2040년까지 까오방 국경 관문 경제구역 건설을 위한 일반 계획서는 2022년 3월 22일자 결정 제 295/QD-TTg에서 총리의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방향이 있음:
 - 공간 개발 방향: 국경 북도에서의 연결체인 모델을 따르며 전체적인 공간 개발은 4개 구역으로 구분될 것이며, 각 구역에는 주요 국경 관문 경제 중심지가 있음. 각 구역의 중심지는 중국 국경 관문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성의 경제 중심지(까오방시)와도 연결되어 있음.
 - 사회 경제적 인프라 시스템 계획 방향: 국경 관문 및 국경 개방 노선 시스템, 산업과 수공업품 개발 지역, 화물 환적창고, 관광지, 농업 및 임업 지역, 주거 개발 지역 및 사회 기반 시설 시스템 등을 포함함.
 - 폐수 수집 및 처리 계획 방향: 분산된 폐수 배수 네트워크 계획, 각 지역의 폐수를 중앙 처리장으로 수집할 것임.
- 현재 까오방성 국경 관문 경제구역 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투자되어 있으며, 투자유치활동 및 국경 무역 경제 활동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켰음. 2015~2020년 기간 동안 6개 국경 관문을 통한 화물 수출입 총액은 124억 달러에 달했으며,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으로 수출입액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연간 평균 8.07 달러에 달했음.

○ 공단 정보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주요정보	투자자/개발사
주칭(Chu Trinh) 공단	2015	8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율: 0% • 현재 산업단지는 운영되지 않으며, 인프라(진입로 및 폐수처리 시스템) 건설에 투자되는 중임 • 투자유치분야: 농림산 및 식품 가공, 광물 가공, 야금 및 기계 조립, 건축 자재 제조 및 기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에 투자할 기업을 모색하고 있음 • 경제구역 관리 위원회는 주칭 공단의 진입로 및 폐수처리 시스템 프로젝트, 운영 센터, 게이트 및 부지정리를 담당하는 투자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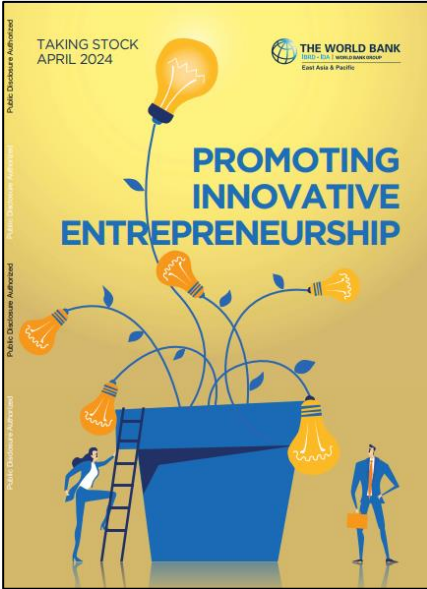
투자 유망분야

까오방성은 다음과 같이 성의 강점이 있는 분야와 개발 여지가 많은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국경 관문 경제구역 인프라 개발
- 첨단 농업
- 제약 산업 및 약초 생산
- 가공산업
- 다양한 관광 유형 개발: 생태 관광, 영적 관광, 넌느억까오방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글로벌 지질공원의 관광 가치 홍보 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까오방성 투자기획청	Mr. Nong Minh Thang 부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06 385 2182▪ Email: sokhdt@caobang.gov.vn▪ Website: http://sokhdt.caobang.gov.vn
	Ms. Truong Thuy Xoan 사업자등록실 부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948 539 299▪ Email: truongthuyxoan@gmail.com



세계은행 베트남 경제 반기 보고서 (Taking Stock April 2024 : Promoting Innovative Entrepreneurship)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최근 경제 동향
2. 경제전망, 위험성 및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및 제언



2024 베트남 콘텐츠산업 동향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베트남 콘텐츠산업의 밑그림 및 주요 변화 동향
2. 2024 베트남 콘텐츠산업의 발전 전망
3. 베트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주의사항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4. 5. 20 기준 누계		2024. 1. 1 ~ 5.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977	87,198.25	145	344.66	1,085.01
싱가포르	3,666	77,869.95	175	2,923.83	3,248.17
일본	5,352	76,031.23	98	947.72	1,227.27
대만	3,179	40,205.67	72	517.09	960.59
홍콩	2,592	35,631.46	131	957.24	1,448.63
중국	4,571	28,105.43	347	926.09	1,126.01
버진아일랜드(영)	917	23,193.18	5	25.68	95.78
네덜란드	436	14,535.75	6	30.55	89.47
태국	746	14,068.64	14	37.44	61.78
말레이시아	743	13,098.21	17	4.48	14.6
미국	1,377	11,899.82	46	68.05	90.4
기타	6,729	59,489.95	171	1,153.49	1,624.13
전체 합계	40,285	481,327.55	1,227	7,936.24	11,071.8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4. 5. 20 기준 누계		2024. 1. 1 ~ 5.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7,310	290,897.83	441	5,374.17	7,433.52
2	부동산 경영	1,168	70,573.99	31	1,831.59	1,976.95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6	40,771.40	2	118	129.17
4	호텔, 외식서비스	999	15,387.89	17	14.6	51.72
5	건설	7,402	11,393.77	412	316.95	514.22
6	도소매, 유지보수	1,829	10,932.23	19	7.87	18.02
7	물류운수	1,125	6,314.27	31	159.7	342.17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608	5,483.96	128	40.16	314.39
9	정보통신	3,015	5,147.34	92	19.79	67
10	채광	107	4,892.57	-	-	-
11	교육, 양성	697	4,630.45	17	16.96	22.16
12	농, 임, 수산	536	3,907.58	3	17.83	54.13
13	예술 오락	145	3,226.41	2	1.58	1.63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049.18	1	0.02	-106.54
15	의료와 사회복지	158	1,864.65	-	-	1.63
16	행정, 지원 서비스	647	1,083.61	3	15.05	50.11
17	금융, 은행, 보험	99	930.85	3	1.99	34.01
18	기타 서비스	150	903.85	-	-	160.5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40,285	481,326.34	1,227	7,936.24	11,071.84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5
수출	3,363.10	3,713.00	3,546	1,562.8(+14.9)
수입	3,322.30	3,589.00	3,263	1,476.7(+17.3)
무역수지	40.80	124.00	280.00	86.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537	57,994	52,379	22,402(+11.0)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0,828	55,536	57,336	27,011(+31.6)
기계/플랜트 및 부품	38,344	45,751	43,128	18,782(+13.9)
섬유/직물제품	32,753	37,566	33,329	13,181(+3.8)
신발류	17,751	23,895	20,237	8,640(+7.2)
원목 및 목제품	14,809	16,011	13,467	6,174(+24.2)
철강제품	11,795	7,993	3,973	1,770(+4.4)
수송수단 및 부품	10,616	11,988	14,157	6,084(+3.7)
수산물	8,886	10,923	8,971	3,545(+5.0)
원사(Yarn)	5,612	4,713	4,355	1,797(+6.5)
기타	87,379	98,934	103,339	47,892
합계	336,310	371,304	354,671	156,27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5
전자제품 및 컴퓨터	75,440	81,884	87,965	40,288(+27.4)
기계/플랜트 및 부품	46,296	45,192	41,579	18,462(+15.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434	21,126	8,749	3,746(+24.9)
의류(원단)	14,324	14,706	13,016	5,918(+11.0)
플라스틱 원료	11,685	12,387	9,755	4,498(+16.8)
각종 철강	11,523	11,920	10,425	5,015(+27.6)
기타 비금속	8,611	9,253	7,626	3,666(+15.9)
플라스틱 제품	7,959	8,119	7,508	3,381(+16.9)
화학제품	7,627	9,144	7,605	3,069(+0.4)
화학물질	7,735	8,747	7,726	3,476(+8.4)
기타	119,600	136,423	124,419	56,146
합계	332,234	358,901	326,373	147,66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5
1	미국	77,077	96,293	109,388	97,020	44,439
2	중국	48,905	56,009	57,702	61,207	22,594
3	한국	19,107	21,945	24,293	23,498	10,214
4	일본	19,284	20,128	24,232	23,314	9,414
5	홍콩	10,437	11,996	10,936	9,631	4,673
6	네덜란드	6,999	7,686	10,430	10,241	4,982
7	독일	6,644	7,286	8,968	7,400	3,161
8	인도	5,235	6,259	7,961	8,498	3,557
9	태국	4,917	6,161	7,476	7,192	3,232
10	영국	4,955	5,765	6,065	6,345	2,985
	기타	79,094	96,782	103,853	100,325	47,027
	합계	282,654	336,310	371,304	354,671	156,27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5
1	중국	84,187	109,874	117,866	110,644	54,881
2	한국	46,895	56,155	62,088	52,511	21,746
3	대만	16,701	20,772	22,631	18,421	8,529
4	일본	20,341	22,648	23,373	21,638	8,842
5	미국	13,713	15,270	14,470	13,822	5,812
6	태국	10,968	12,564	14,092	11,797	4,549
7	오스트레일리아	4,677	7,946	10,144	8,533	3,087
8	말레이시아	6,575	8,148	9,124	7,809	4,056
9	인도네시아	5,382	7,587	9,641	8,728	3,821
10	인도	4,435	6,950	7,086	5,864	2,376
	기타	48,826	64,320	68,386	66,606	29,966
	합계	262,700	332,234	358,901	326,373	147,66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5
수출	48,510(+0.7)	56,729(+16.9)	60,972(+7.5)	53,479(-12.3)	22,905(+11.7)
수입	20,579(-2.3)	23,965(+16.5)	26,726(+11.5)	25,941(-2.9)	11,379(+7.4)
무역수지	27,931	32,763	34,246	27,550	11,525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5
반도체	11,501(7.2)	14,026(22)	16,240(15.8)	12,729(-21.6)	6,565(+36.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4,024(-1.7)
석유제품	1,196(-45.5)	1,157(-3.2)	3,733(222.3)	3,327(-10.8)	1,356(-5.9)
무선통신기기	3,460(18)	3,315(-4.2)	2,358(-29.2)	2,166(-8.1)	1,036(+18.7)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2,001(-22.5)	964(+25.7)
기구 부품	2,241(0.5)	2,405(7.3)	2,194(-8.8)	1,861(-15.1)	738(+4.8)
플라스틱 제품	1,115(-7.8)	1,174(5.3)	1,067(-9.2)	1,021(-4.2)	448(+17.8)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346(-2.9)
기타기계류	669(-14.5)	957(43.0)	793(-17.1)	801(+1.0)	328(-7.7)
계측제어분석기	686(-18.6)	717(4.5)	815(13.6)	734(-9.9)	242(-27.7)
기타	15,437	17,039	17,242	15,612	6,858
합계	48,511(0.7)	56,729(16.9)	60,972(7.5)	53,489(-12.3)	22,905(+11.7)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5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1,979(+9.5)
의류	3,145(-13.7)	3,393(7.9)	3,840(13.2)	3,542(-7.7)	1,385(-0.6)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1,077(+8.2)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1,083(+65.1)
산업용 전기기기	574(20)	725(26.2)	970(33.8)	1,396(+44.0)	671(+23.5)
신변잡화	1,029(-2.2)	984(-4.4)	1,250(27.2)	1,252(+0.1)	483(-11.0)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285(-15.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14.2)	876(-14.7)	783(-10.5)	657(-15.9)	198(-23.1)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229(+12.5)
영상기기	391(11.8)	426(8.9)	441(3.6)	409(-7.2)	166(-2.6)
기타	6,474	8,161	9,103	8,718	3,823
합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38(-2.9)	11,379(+7.4)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5.05	5.05	1.1	3.8	1.9	5.6	
	2023년 4Q	%	6.72	5.04	2.2	3.4	1.7	5.6	
	2024년 1Q	%	5.66	5.11	2.7	3.9	1.5	1.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1.5	N/A	125.9	127.3	97.5	N/A
		2024년 3월	-	4.1	N/A	116.8	133.8	104.06	0.9
		2024년 4월	-	6.3	N/A	116.7	N/A	90.34	7.5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3월	-	49.9	54.2	50.7	48.4	49.1	50.9
		2024년 4월	-	50.3	52.9	50.5	49	48.6	52.2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113.6	N/A	N/A	N/A
		2024년 3월	-	N/A	123.1	115.7	N/A	N/A	N/A
		2024년 4월	-	N/A	127.7	113	N/A	N/A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N/A	4.5
		2024년 3월	-	9.2	9.9	N/A	N/A	N/A	2.1
		2024년 4월	-	9	2.7	N/A	N/A	N/A	2.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25	N/A	3.7	N/A	N/A	7.9
		2024년 3월	%	3.97	3.05	2.7	1.8	N/A	3.7
		2024년 4월	%	4.4	3	3.1	1.8	N/A	3.8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4년 3월	%	N/A	N/A	N/A	N/A	N/A	N/A
		2024년 4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28	N/A	1.9*	3.4	0.98	3.1
		2023년 4Q	%	2.26	N/A	2	3.3	0.81	3.5
		2024년 1Q	%	2.24	N/A	2	3.3	1.01	4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0.82	△3.4
		2024년 3월	%	14.2	△4.19	△3.4	△0.8	△10.87	△7.3
		2024년 4월	%	10.6	1.72	13.3	9.1	6.81	26.4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23	4.1
		2024년 3월	%	9.7	△12.76	0.1	12.5	5.63	△20.0
		2024년 4월	%	19.9	4.62	18.3	15.6	8.35	12.6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2024 한국-베트남 반도체 협력 세미나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는 베트남 반도체 및 연관산업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4 한국-베트남 반도체 협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동남아 반도체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본 행사에 우리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행사명: 2024 한국-베트남 반도체 협력 세미나
- ❖ 일시: 2024년 8월 6일(화) 14:00~16:55
- ❖ 장소: 하노이 롯데호텔 6층 에메랄드룸
- ❖ 주최: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 참가대상: 반도체 및 연관산업 관심기업
- ❖ 행사언어: 한-베 동시통역
- ❖ 프로그램(안) **세부내용은 변동가능*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30~14:00(30)	등록	-
14:00~14:05(5)	환영사	한국 고위급 관계자
14:05~14:10(5)	축사	베트남 고위급 관계자
14:10~14:40(30)	베트남 반도체 산업 정책 및 인프라 소개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
14:40~15:20(40)	글로벌 및 베트남 반도체 산업 현황 · 전망	보스턴컨설팅그룹
15:20~15:40(20)	커피 브레이크	-
15:40~16:05(25)	베트남 주요 반도체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전략	FPT Group
16:05~16:30(25)	한국기업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하나마이크론 비나
16:30~16:55(25)	미국기업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QUALCOMM

- ❖ 참가신청링크: <https://forms.gle/gDcAKv3orivSVxFW9> (선착순 마감)
- ❖ 문의: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soorin@kotra.or.kr / 84-39-752-1045

2024년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KOTRA는 한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 합니다. 진출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13:50 ~ 16:30
- ❖ **장소** : 하노이 롯데호텔 6층, 에메랄드룸
- ❖ **주최** : KOTRA 하노이 무역관, 법무부
 - 법무부 무료 법률상담 부스 운영예정 (*사전 상담 신청 필요)
- ❖ **후원**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코참 베트남,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비고
	13:50-14:00	인사말씀	KOTRA 대사관
세션 1	14:00-14:20	EU 공급망 실사지침 내용 및 진출기업 파급효과	법무부
	14:20-14:40	2024년 경영관련 법규정 안내 및 기업 대응방안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
	14:40-14:50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제도 안내	법무부 강윤성 법무관
	14:50-15:00	Coffee Break	
세션 2	15:00-15:20	베트남 공급망 주요 변화 및 우리기업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곽성일 센터장
	15:20-15:40	2024년 신규 관세, 통관 이슈 안내	신한관세법인 신종호 관세사
	15:40-16:10	세무규정 변경 안, 세무감사 이슈 및 대응방안	서우 회계법인 조성룡 회계사
	16:10-16:30	Q&A	

❖ **참가신청방법** : 7월 9일(화)까지 우측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를 통해 신청

* **신청 링크** : <https://forms.gle/kJw1dropcrJuWPtD8>

- 문의처 :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팀장 (024-3946-0511) / kimkdon@kotra.or.kr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KOTRA >